

한 교수의 문학상담 집단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경험에 대한 예술기반 자문화기술지*

김 경 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요 약》

이 글은 내가 인문학자이자 인문상담 교수로서 문학상담 집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자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강의를 했던 경험을 예술적인 방식으로 검토한 예술기반 자문화기술지이다. 최근 나는 인문상담 전공 대학원생들과 함께 서울의 한 대안 연구공동체에서 8주에 걸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학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기술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고백적-비유적 글쓰기와 다성적 시 쓰기를 통해 성찰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담과 예술(문학)교육 사이에서 실천가로서 갖는 나의 문제의식과 고민을 드러내 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은유 코딩과 인 비보 코딩을 통해 제시하였다. 나의 문학상담 실천은 “시의 ‘비밀 아틀리에’로 초대하기”를 통해 시작되었다. 초대된 모든 이들이 시를 쓰는 이 공간에서는 “문학은 설레고 상담은 불안하다”, “읽기를 좋아합니다. 쓰기를 싫어하구요”와 같은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틀리에의 “수도 관리인”으로서 “이질성, 새로운 물맛”을 제공하려고 하였고, 이곳에서 “‘낯선’ 것과 만나기, ‘허락’ 없는 시 쓰기, ‘평가’ 없는 시 합평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고 하였다. 이런 활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나는 초대된 이들 곁에 “닭은 점이 없는 어떤 사람으로 함께 존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참여자들과 나의 활동은 「‘세탁선’ 아틀리에」라는 다성적 콜라주 시로 재현되었다.

주요어: 문학상담, 자문화기술지, 예술기반 연구, 다성적 시 쓰기, 콜라주 시

* 이 연구는 2019년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KCGU201901).

1. 들어가기

문학상담(literary counseling)은 그 명칭이 보여주듯 문학과 상담이라는 두 영역이 교차하면서 생겨난 상담의 새로운 분야이다. 이해성에 따르면, 문학상담은 “전문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 관계에서 언어예술인 문학적인 표현과 통찰력으로 인간의 실존문제를 이야기로 탐색하여 잃어버린 본성과 언어를 찾”도록 돕고 “깊이 공감하는 예술적 체험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상담”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혜성, 2015: 89). 이러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상담을 병리적 증상의 치료와 사회적 적응을 넘어 개인의 잠재력 실현과 통합적 삶의 변화에 목적을 두는 학문과 실천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부터 나왔다(이혜성, 2015). 이 관점은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주의 상담의 기본 관념과도 통한다. 로저스는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진실하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받는 도움 관계를 맺을 때 그 고유한 경향성을 실현하며 성장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Rogers, 2009).

상담의 영역에서 문학상담을 정의하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인문학자의 관점에서 문학상담을 정의하고 문학상담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정립하려는 시도도 있다. 이금희·장만식(2019)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기존의 ‘문학치료’라는 용어 대신 ‘문학상담’이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치료자가 우월한 위치에 놓이고 환자는 일방적인 수혜적 입장에 놓이는 치료관계와 다르므로 상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둘째, ‘문학’ 또는 ‘문학치료’라는 용어는 독보적인 위상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술치료, 음악치료, 문학치료, 독서치료, 예술치료 등은 포괄적으로 상담의 큰 틀에 속하므로 문학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을 살리면서도 결국 이 활동들이 상담의 틀 속에 있음을 적시하는 ‘문학상담’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이러한 주장 역시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걷는 동반자”(이금희·장만식, 2019: 27)로 보는 인간중심주의 상담의 전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앞서의 정의와 친연성을 갖는다.

문학상담이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활동이라면, 그것이 내담자에게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어떤 상담적 효과를 거두는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문학상담 실천가들이 활동을 수행하면서 어떤 문제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임하고 내담자와의 만남을 조직화하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실천가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변화를 겪는지도 중요하다. 특히 문학상담은 이미 독자적인 두 영역으로 확고하게 존재해온 문학과 상담이라는 두 영역이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그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으로 인해 실천가들이 문학 전문가들 또는 문학이나 예술을 매개로 하지 않는 일반 상담자들과 다르게 어떤 특수한 경험들을 하고, 그 경험들이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2019년 가을 두 달에 걸쳐 시인이자 동료 교수인 A와 함께 문학상담 집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나는 이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자 진행자로서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후 문학상담의 지향점과 문학상담 실천가의 역할을 명료히 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첫째, 나는 문학상담 집단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어떤 관심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셋째, 그런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나는 프로그램 내에서 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어디에 찾는가? 이 연구는 나 자신의 성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문학상담이나 유사한 분야의 실천가들과 예비 실천가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로써 현장을 풍요롭고 효과적으로 조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연구자의 연구과정에 가장 성찰적으로 접근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동료 실천가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성찰적 자문화기술지 방식을 채택하고 고백적-시적 글쓰기를 실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예술기반 자문화기술지

‘자문화기술지’라는 용어를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하야노(Hayano, 1979)는 이 용어의 의미를 연구자가 연구하는 집단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그 집단의 성원과 긴밀한 라포르를 형성하면서 완전한 내부인이 되는 경험을 연구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김영천, 2013a). 나는 그동안 문학상담 집단 프로그램의 촉진자나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나 자신이 다른 참여자들처럼 문학적 작업을 하거나 그 작업한 결과를 가지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더라도 그들과 극도로 친밀한 정서적 공동체를 이루며 그 속에서 완전한 내부인이 된 같은 느낌을 받아왔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나 자신이 문학상담 소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서적 반응들과 미적 경험의 흐름 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으며, 그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성찰과 함께 상담의 진행 과정에 대한 교육적 성찰들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에 나는 자문화기술지의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문학상담 현장의 내부인으로서 그 속에서 발생하는 풍부한 체험들을 질적으로 기술하고 연구자로서의 나 자신의 성찰을 촉진하고자 한다.

연구자 자신이 ‘완전한 내부인’이 되는 경험에 대한 연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주객 이분법에 기초한 재현(representation)의 논리를 거부하고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다룰 때에는 필연적으로 그 대상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관계 속에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에 대해 정서적 반응을 하고 직관적 앎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문화기술자는 사회과학이 객관성 추구로 인해 직관과 정서를 결여하고 있는 경향을 비판하며, 그 비판적 태도를 더욱 더 엄밀하게 밀고 나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같은 진리추구의 학문과 예술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켜 학제간의 경계들을 세우는 것이 과연 유용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시한다(Gregory & Walford, 1989; Gregory, 1988; Rorty, 1982; Ellis, 1997에서 재인용).

자문화기술지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의식을 급진적으로 수용한 연구방법 중 하나로 예술기반 연구(Arts-Based Research, 이하 ABR)를 들 수 있다. ABR은 연구결과를 예술적 형식으로 번역하는 차원을 넘어 예술적 접근을 통해 앎을 형성하려고 하는 연구방법으로서, “사고의 형식, 표현의 형식을 이용해서 예술이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이런 이해를 통해 마음을 넓히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Barone & Eisner, 2012: xi; Glesne, 2017: 341에서 재인용). 이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가 실증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정서적·인지적 과정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ABR에서 예술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술이 실증적 지식 탐구의 방식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정보들을 다루고 교육하는 데 효과적이며, 묘사, 탐구, 발견을 목표로 하는 질적 연구에 적합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Leavy, 2018). 이미 구미의 질적 연구에서는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적 양식(literary forms)을 연구과정에서 글쓰기를 수행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양식은 실험적(experimental) 양식, 대안적(alternative) 양식, 예술기반적 접근(Arts-based approaches)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김영천·이희용, 2008).

문학적 양식으로 연구결과를 기술하는 예술기반 연구는 이미 자문화기술지 연구에서 ‘시적 자문화기술지(poetic autoethnography)’라는 이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프렌더가스트(Prendergast, 2011)는 사회의 엘리트 계층에 속한 학자들이 자신들이 채용된 대학으로 장거리 통근을 하면서, 경제적 구속에 의해 강제로 이주한 노동자와 유사한 심리적·물리적 유배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두 편의 시로 보고하였다. 또한 하나위(Hanauer, 2012)는 홀로코스트를 피해 영국으로 입양된 유대인 그룹인 킨더트랜스포트(Kindertransport) 생존자 2세로서,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죽은 조부모에 대해 쓴 자신의 시들을 인용하고 그 작품들과 연관된 서사를 기술하는 시적 내러티브 자문화기술지를 작성하였다.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는 연구결과를 기술하는 단독적 형식으로 사용되거나 또 다른 성찰적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자료로 활용되면서 예술기반 자문화기술지의 중요한 연구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백적-감성적 글쓰기(Chang, 2008)와 시적 양식 이 두 가지 양식으로 연구자의 성찰을 재현하고자 한다. 프렌더가스트(2009)는 시적 양식을 시에서 들리는 목소리의 성질에 따라, 문헌 목소리 기반 시(literature-voiced poems), 연구자 목소리 기반 시(researcher-voiced poems), 참여자 목소리 기반 시(participant-voiced poems) 이 세 종류로 구분한다(Faulkner, 2018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 글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대한 성찰적 자문화기술지이므로 진행 과정을 함께한 연구자의 목소리와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함께 드러나는 시적 글쓰기를 실행하고자 한다. 이런 시적 양식은 ‘다성적(polyphonic) 목소리 기반 시’로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프렌더가스트(2015)의 말처럼 연구자가 비판적인 시적 탐구를 통해, 정의, 인정, 치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참여자들 곁에서 능동적 목격자로서 관여할 수 있다면(Faulkner, 2018에서 재인용), 재현되는 시에서는 참여자들과 목격자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2.2. 인문상담 교수로서의 자문화기술자

대학과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한 나는 2014년 상담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에 인문상담 교수로 부임한 후, 전문 상담자가 되려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인문상담 집단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교육해왔다. 특히 부임 초기부터 인문상담 동료 교수인 A와 함께 여러 차례 문학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작업을 해왔고, 그 협업의 결과를 담은 문학상담 전공서를 함께 출간하기도 했다. 2019년 가을에는 그 책의 문제의식을 더 명확히 반영하고 또 책에서 소개한 문학상담 기법들을 활용한 8회기의 집단 프로그램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동안 우리가 기획하고 진행했던 문학상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서울시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실행한 프로그램들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의 전공수업이나 부설연구소의 자격증 연수과정에서 수강생들의 자기성찰과 실습을 위해 실행한 프로그램들이다. 전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상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콘텐츠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대상이 상담자나 예비 상담자 집단인지 일반 시민인지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문학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상담보다는 문학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는 현재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이 프로그램의 일부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곤 한다. 초기에 기획했던 프로그램들의 경우 프로그램 진행 중이나 종료 후에 참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 동기로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들과의 만남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철학을 전공했고 전문 작가의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로서는 문학상담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에 다소 부담을 느껴온 것도 사실이다. 현재 나는 인문상담 교수이고 인문상담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년간 문학상담 활동에 대해 슈퍼비전을 해왔지만, 나의 이런 이력이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문학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동기를 갖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항상 마음 한편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문상담이라는 더 넓은 틀에서 문학과 철학을 구분하지 않고 작업하는 일의 정당성이 그런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내 속에 자리잡고 있다. 나는 동양철학을 연구해 오면서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철학과 문학 사이의 엄밀한 구분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다. 시 짓는 솜씨가 뛰어났던 유가(儒家)철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장자』와 같이 도가(道家)철학의 깊은 사유를 보여주는 고전은 빼어난 문학성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문학교전이기도 하다. 철학과 문학의 학제적 구분은 근대적 분과학문체계의 산물로서 100년이 조금 넘는 현상에 불과하다. 철학과 문학을 구분하는 학문체계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 탈근대철학의 새롭고 혁신적인 흐름으로 소개되곤 하지만, 동양철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오히려 오랜 전통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고 친숙한 태도

이다.

나는 철학을 전공했고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6년간의 문학상담 연구와 교육 활동을 통해 문학상담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자 진행자로서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러한 나의 위치는 문학상담 전문가를 꿈꾸는 예비 상담자들의 위치와 유사한 점이 있다. 문학상담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나처럼 학부에서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 특별히 작가로서 등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들이 향후 전문가로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프로그램은 전문 작가가 아닌 상담 전문가와 함께 하는 문학적 글쓰기 활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문학을 매개로 하는 이상 문학 콘텐츠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요구되기는 하지만, 전문 작가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창작기술을 갖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학활동 안에서 어떻게 상담적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인가가 그들로서는 전문성 확보의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창작 활동과 상담활동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창작활동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상담자 스스로 섬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문학의 외부자일 수 있는 연구자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문학과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문학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예비 상담자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3. 연구절차

자문화기술지의 대표적인 자료에는 기억(memory) 자료, 자기성찰(self-reflection) 자료,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자료, 인터뷰(interview) 자료, 문화적 인공물(cultural artifact), 문헌(literature) 자료 등이 있다(이동성, 2012). 이 연구를 위해 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동료 교수 A와 나누었던 대화에 대한 메모를 토대로 기억 자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회기별 성찰 메모를 통한 자기성찰 자료, 프로그램의 조별활동을 진행한 리더들의 회기보고서, 프로그램 참여자 1인과의 회기별 심층 인터뷰 자료, 강좌 포스터, 축진강의 PPT 자료, 핸드아웃 및 참여자 후기가 기록된 인터넷 게시판 글과 같은 문화적 인공물, 8회기의 축진강의 내용 기록 및 문학상담 관련 문헌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연구기간은 총 8개월로, 문학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한 2019년 6월을 기점으로 하여 8회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와 심층 인터뷰(9회) 및 추가 인터뷰(1회)를 진행하여 자료를 생성하고 글쓰기 작업을 마무리한 2020년 1월말까지이다.

<표 1> 분석자료

자료명	수집기간	자료수	자료형식
프로그램 기획자료	2019.06.17~ 2019.10.10	3	프로그램 공간 담당자와의 인터넷 메신저 기록 1 및 이메일 1 프로그램 포스터 1
프로그램 진행 자료	2019.10.11~ 2019.11.29	25	출석부 1 촉진 PPT 8 강의 기록 8 핸드아웃 8
회기별 일지 및 회기보고서	2019.10.11~ 2019.12.24	32	강의 후 성찰 메모 8 조별 리더 3인 회기보고서 24
참여자 심층 인터뷰	2019.10.11~ 2020.01.23	10	인터뷰 메모 2 인터뷰 (포괄적) 녹취록 8
참여자 반응 자료	2019.10.11~ 2019.11.29	13	참여자들의 후기 자료 7 참여자의 개인 블로그 글 6

이 글은 연구결과의 글쓰기를 두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동성·김영천(2014)의 포괄적 분석절차에 따라 자료를 코딩하고 주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지나치게 명료한 분석절차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원자료들의 풍부함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방법적 환원의 한계에 주목하여 실용적 절충주의의 관점에서 질적 자료의 분석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자료를 읽고 정리하여 분석적인 메모를 하고 문단 단위 코딩과 인 비보 코딩을 함으로써 초기 코딩을 실행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코드들을 지속적으로 코딩하고 귀납과 연역을 오가며 6개의 범주(①시의 ‘비밀 아틀리에’로 초대하기, ②아틀리에의 목소리1: “문학은 설레고 상담은 불안하다”, ③아틀리에의 목소리2: “읽기를 좋아합니다. 쓰기를 싫어하고요”, ④아틀리에 수도 관리인의 목소리: 이질성, 새로운 물맛, ⑤아틀리에: ‘낯선’ 것과 만나기, ‘허락’ 없이 시 쓰기, ‘평가’ 없는 시 합평회, ⑥아틀리에의 수도 관리인: 닳은 점이 없는 어떤 사람으로 ‘함께’ 존재하기)를 도출하였고, 고백적-감성적 글쓰기로 연구결과를 재현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적 글쓰기의 방식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후기 자료와 연구자의 자기 인터뷰 자료로부터 ‘발견된 시(found poetry)’를 구성하였다. 리차드슨(1992)은 이러한 시 쓰기의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이나 감정에 들어가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Leavy, 2018: 167에서 재인용). 이런 점에서 시적 재현은 인식, 신체, 정서, 그리고 관계를 중시하는 상담학 관련 연구에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와 시적 글쓰기를 매번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시적 표현에 점점 익숙해져서 소감과 후기를 말할 때에도 시적인 표현을 즐겨 구사하기 때문에, 시적 재현은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에

도 효과적이다. 김윤경(2017)은 세상을 ‘무대’처럼 보고 ‘배우’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는 연극 전공자를 연구 참여자로 하는 연구에서 이들의 스토리와 목소리를 생생하게 살리기 위해 ‘시적 드라마적 글쓰기(Poetic and Dramatic Writing)’를 채택한 적이 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에 맞춰 질적 연구의 글쓰기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나는 연구과정에서 던칸(Duncan, 2004)이 제시한 6가지의 평가준거, 즉 연구범위, 도구적 유용성, 구성 타당도, 외부 타당도, 신뢰성, 학구성이라는 이슈를 따랐다(이동성, 2012에서 재인용). 첫째, 이 글은 문학과 상담이라는 상이한 영역의 교차 속에서 생성 중인 문학상담의 새로운 요소들을 내부자 관점으로 기술하고 성찰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으로서 예술기반 자문화기술지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연구자의 예술성을 촉진하고 성찰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먼저 고백적이고 비유적인 글쓰기(아틀리에 ‘세탁선’의 비유)를 통해 연구결과를 재현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다성적인 시적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둘째, 이 글은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하고 실행하려는 계획이 있거나 이를 위해 문학상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동료 실천가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도구적 유용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 글은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보하기 위해 나 자신의 개인 자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 1인의 회기별 심층 인터뷰와 여러 참여자들의 참여후기, 진행 리더들의 회기보고서 등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함께했던 동료 교수가 부분협력적 자문화기술지 방법으로 참여하여 자료 분석과 해석을 위한 토론을 수행하고 초고를 검토·확인해주었다. 넷째, 상담 전문가 1인의 자문과 문학상담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있고 자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문학상담 전공 대학원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연구 결과에 재현된 주제와 이론에 대한 외부 타당도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이 글은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이야기를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를 프로그램 참여자, 진행 리더 등이 검토하는 구성원 검증(member check)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reliability)을 확보하였다. 여섯째, 이 글은 나의 개인적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통해 문학상담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적 원리와 실천 패턴들을 제시하는 이론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또한 자료를 제공해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료 사용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자료 활용 시 참여자들의 의사에 따라 별칭을 사용하거나 익명으로 처리하여 동의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노출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하였다.

3. 문학상담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 경험

“같은 얼굴, 탁자, 의자, 찻잔 하나라도 매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진정한 모습으로.”

—알베르토 자코메티

3.1. 시의 ‘비밀 아틀리에’로 초대하기

동료 교수 A와 함께 문학상담 관련 서적을 출판한 뒤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물론 이 책은 문학상담의 이론적 배경과 주요 개념들을 설명하고 독자가 혼자서도 작업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지만, 문학상담의 가장 큰 장점과 효과는 다른 이들과 활동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독자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책에 기록했던 문학상담 활동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컸다. 이미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상담 전공생들을 위해 문학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은 매번 특별한 것이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에 전공생들이 참여해서 리더로서 활동하는 경험은 문학상담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이런 현장 활동의 기회를 이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의무이기도 했다.

우리는 이번 프로그램을 대안 연구공동체 □□□□□□에서 2019년 10월과 11월에 걸쳐 두 달간 8회기로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매 회기 프로그램은 전체 활동(교수자의 활동설명 및 촉진 강의)과 소집단 활동(창작작업과 나눔활동)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24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6명씩 4조를 구성하고, 모든 조에는 리더들이 들어가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문학상담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거의 매 회기마다 참여자들이 시를 쓰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시를 쓴 참여자들의 호칭을 모두 ‘시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은 함께 시를 쓰며 시인이 될 이들이 모이는 ‘아틀리에’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아틀리에에는 우리의 활동과 함께 출현했다가 사라지는 문학적 공간이며, 그곳에서는 모두 시인이 된다. 프로그램 구상이 끝난 후 A가 대안 연구공동체의 담당자와 연락을 하기로 했다.

A: 10월에 ○○○○○○○○○라는 제목으로 K선생이 강의를 하나 개설할까 해요. 시 쓰기를 통한 자기성찰 프로그램인데요. 수업은 3시간 8회기, 수강생은 24명. 가능한지요?

담당자: 물론 강좌는 환영입니다. 다만 수강하는 입장에서 헛갈릴 수 있으니, 컨셉을 시 아닌 문학상담이나 자기성찰 쪽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A: [……] 문학상담, 자기성찰로 가는 거 괜찮아요. 우리는 □□에서 상담한다고 하면 좀 어색할까봐 시 쓰기로 제안한 것임.

(2019.6. A와 공간 담당자의 인터넷 메시지 대화)

담당자는 그 연구공동체에 이미 다른 강사의 시 쓰기 강좌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컨셉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곤란하니 상담 프로그램이나 자기성찰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부각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이 요청을 전해 듣고 조금 주저되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문학상담 프로그램인 것이 분명하지만 일반 시민 참여자들의 경우 ‘상담’이라는 말에 다소 부담을 가지는 경

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자기성찰’이라는 용어도 사람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무겁고 반성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무늬를 읽는다는 식의 편안한 제목으로 프로그램명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담당자의 요구로 인해 ‘상담’이란 단어를 불편해하는 참여자들이 우리의 아틀리에를 방문할 가능성이 한층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은 상담에 관심이 있거나 적어도 거부감이 없는 이들로 24명이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내심 이 아틀리에로 초대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상담이라는 단어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상담 활동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삶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A와 나는 문학상담 프로그램이, 상담에 대한 편견으로 상담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상담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담당자의 요청에 아쉬움을 느꼈다. 그래서 담당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강좌에서 참여자들이 집단상담 활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어떤 표현도 강좌 소개문에 넣지 않았다. 하지만 담당자는 포스터 문구를 만들면서 내가 보내준 소개문에는 적혀 있지 않은 ‘문학테라피’라는 단어를 넣었다.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대안 연구공동체의 운영 사정이 있으므로 수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사실이 있었다. 참여자들이 초대될 공간이 시인들의 아틀리에, 즉 시를 쓰는 작업실이라는 점이었다. 포스터에는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시를 쓰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없었다. 우리는 소개문에 참여대상을 “문학을 통해 자기 마음의 무늬를 읽고 싶은 사람, 등단을 하거나 직업 문인이 되는 데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적어놓았다. 등단을 하거나 직업 문인이 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문학은 사랑하지만 적어도 소설이나 시 같은 것을 창작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이 아틀리에로 초대하고 싶었던 이들은 독자로서 문학에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시를 쓰는 일은 도무지 엄두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을 시인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들이 오게 될 곳이 아틀리에임을 비밀로 하였다.

3.2. 아틀리에의 목소리1: “문학은 설레고 상담은 불안하다”

참여자들은 2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었다. 대체로 문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두 단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구성하는 듯하다. ‘문학테라피’라는 말이 포스터에 표기되고 담당 강사가 시인과 인문상담 교수로 공지된 데에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성격을 나름대로 파악한 것 같았다. 이들은 당연히 문학과 상담이 결합된 강좌를 들으리라 짐작했던 것이다. 이 대안 연구공동체는 그곳에서 열리는 세미나와 강좌의 참여자들이 매회 강좌가 끝난 후 3~4명씩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고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판에 후기도 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강좌의 참여도를 높이고 그 공동체의 활동을 알리고 있었다. 이런 운영방식 덕분에 나와 프로그램 리더들은 참여자들의 기

대와 소감을 진솔하게 들을 수 있었다. 많은 참여자들이 A와 내가 함께 쓴 책을 강좌 교재로 한다는 공지를 보고 문학 및 상담과 관련된 이론 강의를 들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 신청했다는 이들도 있었고 프로그램 제목 때문에 상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도 있었다. 한 참여자는 상담을 예상하며 조금 불안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학+상담이랬더니

그래서

설레고+불안했더니

상담은 보이지 않고

시만 보였다

불안은 사라지고

설렘만 남았다

시는 드러났고

상담은 감춰졌다

(2019.10.28. 참여자 빈빈님의 3회기 후기, 대안 연구공동체 □□□□□□□□ 게시판)

참여자들이 상담에 대해 다소 불편하고 낮은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운 점이다. 방송매체를 통해 힐링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우울증 약을 비롯해 다양한 정신과 약들을 처방받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프로그램에 오는 이들은 여전히 상담이라는 명칭을 불편해했다. 문학을 만나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상담을 받는 것은 ‘불안’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전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런 피드백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나와 A는 상담이라는 명칭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상담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는 문학상담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문학상담 개념을 고수하며 다른 이들에게 이 확신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지는 않았다. 물론 모든 참여자가 상담에 대해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부감을 지닌 참여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경우 그가 활동 전반에 비협조적이고 저항적인 태도를 취하며 집단의 역동을 좌우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할 때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은 것은 ‘문학활동 속에서 자연스러운 성찰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참여자의 이야기와 후기를 통해 나는 이 원칙을 세운 것에 내심 안도감을 느꼈다.

3.3. 아틀리에의 목소리2: “읽기를 좋아합니다. 쓰기를 싫어하고요”

문학을 드러내고 상담을 감추는 일은 쉽지 않았다. 문학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에도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시인인 A가 강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하는 참여자들 중 일부는 평소 시를 쓴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시 쓰기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1회기에 얼떨결에 시를 쓰고는 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문학을 사랑하지만 독자로서 향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직접 창작을 하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상담의 불편함 대신 시 쓰기의 불편함이 마음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회기가 거듭됨에 따라 참여자들의 반응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문학을 좋아합니다. 활동은 싫어하고요.
읽기를 좋아합니다. 쓰기를 싫어하고요.

이랬었는데..

내 안에 시인이 있다는 걸 깨달은 신기함과 뿌듯함,

(2019. 11.15. 참여자 달님의 5회기 후기, 대안 연구공동체 □□□□□□□□ 게시판)

참여자 달님처럼 초반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오는 동안 시를 써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중반을 넘어서자 그 부담이 “신기함과 뿌듯함”으로 바뀌고 있음을 표현하는 참여자들이 늘어났다. 문학으로 마음의 무늬를 읽는다는 개념을 취하고 있기에 우리 프로그램에 오는 이들은 문학에 대한 관심과 동경이 컸지만, 문학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작품을 쓰는 것을 먼 나라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좋은 작품의 열렬한 감상자로만 남아있으려는 사람들을 문학적 ‘활동’의 수행자로 만드는 것, 그러한 존재의 변환이 일어나는 순간 참여자들이 느끼는 부담과 저항을 최소화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 젖어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A와 내가 그동안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이었기에 나는 이 후기를 보면서 무척 안도했다.

3.4. 아틀리에 수도 관리인의 목소리: 이질성, 새로운 물맛

아틀리에에는 원래 ‘화가나 조각가가 작업을 하는 방’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특정 스승을 중심으로 한 예술가의 집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표준국어대사전). 탁월한 화가나 조각가들은 여러 명의 견습생들을 데리고 자신의 작업장에서 작품을 완성하곤 했기 때문에 아틀리에에는 작업장이면서 예

술적 능력에 따른 위계가 존재하는 공간의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려고 한 아틀리에에는 작업의 중심이 되는 예술가 스승이 존재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A는 나와 대화하면서 피카소가 화실을 차리고 여러 시인들과 화가들이 모여들었던 파리의 집합 아틀리에 ‘세탁선(Bateau-Lavoir)’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다.

새로운 예술 작업에 대한 매혹이 존재하고 동료들의 작업으로 서로가 자극을 받는 그런 곳. ‘세탁선’은 아귀가 맞지 않아 흔들거리는 문이 있는 아주 낡은 건물이었다. 피카소가 그 덜컹거리는 문 위에 ‘시인들의 집합소’라고 써놓을 만큼 시인들은 그곳에 자주 왔다. ‘세탁선’이라는 명칭도 시인 막스 자콥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세탁선’에는 서른 개가 넘는 작은 아틀리에들이 있었는데도 수도는 단 한 개뿐이어서 모두가 그 수도를 공동으로 써야 했다. A와 아틀리에 ‘세탁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내가 예술적 열정이 넘치는 아틀리에들이 모여 있는 건물의 수도 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 프로그램을 아틀리에 ‘세탁선’으로 비유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는 프로그램의 구성 및 진행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관점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상담에 대한 불편함과 창작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키는 일 이외에 우리가 문학상담의 공간을 구성하면서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예술가들이 커피를 끓이고 붓을 씻고 밤을 샌 후 세수를 할 때 쓰는 공동의 수도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집세가 저렴한 것이 가난한 화가들과 시인들이 ‘세탁선’에 모여든 이유였다는데, 그들이 작가로 성공한 이후에도 그 남루한 거처를 잊지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문학상담 작업과 ‘세탁선’의 유비 속에서 여러 물음들이 연이어 떠올랐다. 철학자 들뢰즈는 프루스트의 소설을 분석한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선생이나 부모가 준 사전을 통해서는 전혀 배울 수가 없다. 기호는 그 자체 관계에 있어서의 이질성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했던 방식을 따라서, 그 사람<처럼> 무엇을 해서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다.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는 바와 닮은 점이 없는 어떤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한다. [...]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시대의 가장 비범한 걸작들이 전국 고교작문 경연대회 출신이나 드 브로이de Broglie 식의 모범적이고 아카데미한 교육에서 나오지 않고 경마장과 고급 술집에 자주 출입하는 자들 쪽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웠다.> (Deleuze, 1997: 49)

예술가이든 예술가가 아니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질성이 필요하다. 들뢰즈의 언급은 모방이 중요한 학습 원리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배움이 단순한 재인식(recognition)과 다른 것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가는 주장이다. 어떤 사물을 보면서 그 사물이 내가 알고 있는 사물과 같은 사물임을 확인하는 ‘수월한 재인식’ 과정, 즉 기존의 얕이 나의 인식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과정에서는 배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물과의 마주침은 우리에게 많은 배움을 가져다주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판에 박은

듯한 기성(既成)의 어떤 믿음을 이겨 내지 못한다면 이런 마주침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Deleuze, 1997: 54). 새로운 만남에서도 늘 같은 것만 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반대로 늘 보던 주변의 사물들에서도 그것들을 둘러싼 기성의 믿음을 깰 수 있는 사람은 늘 새로운 마주침을 경험하는 사람,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참여자들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일은 그들이 만나는 사물이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성의 믿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질성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모인 20명이 넘는 아틀리에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에서 새로운 물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했다.

3.5. 아틀리에: ‘낯선’ 것과 만나기, ‘허락’ 없이 시 쓰기, ‘평가’ 없는 시 합평회

아름답고 치유적인 아틀리에를 열기 위해서는 첫째, 상담에 대한 편견에서 오는 참여자들의 불편함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창작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참여자들의 능동적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참여자들이 기성의 믿음을 깨고 이전과 다르게 느끼고 사유할 수 있도록 이질성의 계기를 확보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다시금 확립하게 된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의 중요한 지침이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할 당시에 이 세 가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이것을 일종의 가정으로만 가지고 있었다. 이전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도 참여자들이 설문지를 통해 앞에서 서술한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프로그램 완료 후 작성된 설문지의 짧고 형식적인 답변만으로는 참여자들의 반응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프로그램 회기가 끝날 때마다 참여자들에게 자기소개를 하게 하고, 또 매 회기에 대한 후기를 올리게 하는 대안 연구공동체의 운영 방식 덕분에 우리는 앞선 회기들에 대한 참여자들의 느낌이나 참여 동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물론 회기 종료 후에 익명으로 실시하는 설문평가 방식에 비해 프로그램 진행 중에 올리는 강좌 게시판의 후기는 부정적인 평가나 개인적 불편함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후기를 통해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경우 어떤 요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게시판 후기를 통해 참여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은유적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세우고 이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 훨씬 분명해졌다. 그리고 역으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번 프로그램의 기획안을 검토하며 이 관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작업과정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첫째, 상담에 대한 불편감을 최소화했는가? 다른 매체의 활용 없이 주로 대화만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상담과 달리 문학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시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활용해서 대화를 나누고 글쓰기 작업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참여자들은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자신이 초점화되거나 노출될 때 느낄 수 있는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안전하게 드러내었고, 성찰도 자연스럽게

게 일어날 수 있었다.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담 과정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는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다소 불편해하는 이들을 위해 문학상담의 작업과정을 시 합평회를 연상케 하는 문학적 모델로 구성하였다. 문학회의 시 합평회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를 읽고 그 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이다. 누군가의 시에 대해 말할 때에는 시를 쓴 사람이 그 시의 내용이나 의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시를 꼼꼼히 읽고 그 시가 주는 인상에 대해 충분히 나눈다. 시인은 오가는 이야기들을 잘 경청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합평이 끝난 후에야 자신의 창작 의도나 특정 단어들의 의미, 작업상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찬가지로 문학상담 집단 프로그램에서도 참여자들은 20~30분 정도의 작업과정을 거쳐 시를 쓰고 난 뒤 각자의 작품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데, 이 나누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다른 참여자들의 반응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다. 시의 비유적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고백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에 대한 타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때 다른 참여자들은 시를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단지 그의 시가 주는 느낌에 대해서 말한다. 따라서 시를 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 고백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이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자기 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난 후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의도와 다른 피드백 내용에도 자신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읽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워하면서 어쩌면 그런 피드백이 자신의 의식의 표면 아래에 있는 마음을 본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을 하기도 했다. 다른 참여자들의 피드백이 끝나고 시인의 말을 듣는 순서에서는 그의 말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소집단 활동의 나눔시간은 대체로 빠듯했고 종료시간에 맞춰 마무리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둘째, 창작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되었는가? 우리는 시 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 도입부인 1, 2회기에는 다시 쓰기(rewriting)와 시 콜라주(collage) 등을 활용해서 참여자들이 시 쓰기에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했다. 1회기에는 비스와바 쉼보르스카의 「선택의 가능성」을 함께 읽고 이 시의 매 행마다 반복되는 ‘~을 더 좋아한다’라는 문장을 이용하여 참여자들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쓰도록 했다. 이런 형식의 시를 쓰게 되면 반복성이 만들어내는 리듬감 때문에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3회기는 1회기보다 난이도가 높은 다시 쓰기 작업이었다. 진은영 시인의 시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을 읽고 자기 삶의 중요한 키워드 n개를 골라 자기만의 사전을 만들어보는 방식을 취했다. 3회기의 다시 쓰기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강의에서 A는 사물을 표현하는 데 오감(五感)과 은유를 사용하는 시적 표현의 특성을 소개했다. 이처럼 같은 기법이라도 회기의 진행에 따라 난이도를 조정하고 참여자들이 성취감을 느끼며 다음 작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조화했다. 또한 시 쓰기가 반복될 때 올 수 있는 단조로움을 막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4회기), 신체활동(5회기), 청각자료(6회기), 드로잉(7회기) 등을 결합하여 시 쓰기로 마무리 되는 매 회기의 작업에 다양성을 부여했다.

<표 2> 프로그램 개요

포스터 안내 문구	“떨어지는 빗방울이나 작은 나뭇잎들에 물의 표면이 잔잔한 무늬를 그리듯,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계에 반응하면서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부지런히 기록되어 마음의 고유한 무늬를 만들어내지요. 이 강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데 지친 이들, 자기 마음의 무늬를 발견하고 새롭게 그려보고 싶은 이들을 위한 문학테라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상: 문학을 통해 자기 마음의 무늬를 읽고 싶은 사람, 등단을 하거나 직업 문인이 되는 데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 ○ 교재: □□□□□□□□□□(2019) ○ 구성: 촉진강의(40분 내외), 글쓰기활동(40분 내외), 나눔(100분 내외)			
회기	회기 제목	강의	활동 내용	기법
1	시작(始作)을 위한 시작(詩作)	나	시인의 시를 리라이팅하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로 나를 표현하고 소개한다.	다시 쓰기
2	내 마음의 조각들	나	누군가의 시 속에서 나를 찌르는 푼크통을 찾아 내 마음의 조각들을 모아본다.	시 콜라주
3	N개의 단어로 된 사전	A	나만의 사전이 있다면 그 사전에는 어떤 단어들(어휘)이 있을까? 내 삶의 소중한 단어들(어휘)을 골라 시적인 정의를 내려본다.	오감으로 표현하기
4	그 애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나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누구나 어린 시절의 사물을 하나씩 간직하고 있다. 그 사물의 틈새로 나였던 그 아이를 찾아본다.	사진/ 시 쓰기
5	그것이 되었어요	나	나는 많은 사물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것들은 어떤 기분으로 나를 바라볼까?	신체활동/ 시 쓰기
6	혼자 있는 능력	나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다. 외로움과 고독 사이에서 나에게 말을 건네본다.	시 쓰기
7	어떤 손에 대한 기억	나	손은 무언가를 만지고 가리키고 건드린다. 내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누군가의 손을 떠올려본다.	드로잉/ 시 쓰기
8	내 마음의 책 만들기	나	나의 책, 너의 책, 우리의 책을 완성해본다.	책 완성 및 전시

기술적인 방식으로 시 쓰기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창작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작(詩作) 활동 자체에 대한 관념을 바꿔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프로그램 초반에 이 두려움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지 못할 경우 참여자들의 조기 중단 가능성이 커지기 때

문이다. 그래서 첫 회기 촉진강의에서는 시와 같은 문학적 글을 쓰는 것은 전문가들만이 하는 특별한 활동이라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트린 민하의 글을 참여자들에게 소개했다.

글을 쓰는 그/녀(s/he)는 쓴다. 불확실성 속에서, 필연성 속에서.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장 의존적 사회의 맥락에서는 ‘작가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순수하게 글을 쓰는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게 되었다. 평신도가 성직자가 되려면—작가들의 성스러운 세계로 진입하려면—그/녀는 불문율과도 같은 수많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녀는 일련의 의식들을 거쳐야 하고 세례를 받고 서품을 받아야 한다. 그/녀는 자신의 글이 문학적/교양의 희생자들의 범인이 정한 법률에 따르게 해야 하고, 그들의 평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Trinh T. Minh-Ha, 1989: 8)

우리는 글을 쓸 때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 사람이 글을 쓸 때 그것이 아름다운 글이 될지 식상한 글이 될지, 완성될지 중간에 멈출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는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예감 속에서, 혹은 쓸 수밖에 없는 필연성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설레하며 글을 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등단이라는 세례, 시인이라는 서품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시 쓰기를 가로막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평결을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나는 트린 민하의 글을 천천히 낭독한 후 참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런 시선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여지는 작품에 대해서 일반 문학작품을 볼 때 적용하는 기준이나 평가적 시선은 배제하였으면 합니다. 쓰는 것도 그렇고 피드백 하는 것도 그렇고, 정답이 없고, 정답이 없는 만큼 오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작품을 볼 때도 소위 ‘객관적’ 관점이나 평가적 시선을 그냥 내려두시고, 작품의 시구들, 시어들에 대해 일어나는 내 마음, 그리고 그 시를 쓴 시인의 존재에 충실하였으면 합니다. (2019.10.11. 1회기 촉진강의 기록)

시 쓰기에 대한 부담은 사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작품을 써야 한다는 부담이다. 그러나 자신의 작품과 다른 사람의 작품 모두에 대해 평가적인 시선을 내려놓으면 시를 쓰는 것도 누군가의 시에 대해 말하는 것도 쉽고 즐거워진다. 5회기를 마치고 난 뒤 한 참여자는 이렇게 후기를 올렸다.

여기에서 나는 뭐든 쓸 수 있고 무엇도 될 수 있다. 수업을 떠올리기만 해도 사각사각 연필소리가 난다. 시를 쓰는 것도 재밌지만 시를 나누는 건 더 재밌다. 세렌드, 짹, 슬아의 시에서는 저마다 다른 냄새가 난다. […] 시 쓰는 시간은 짧게, 나누는 시간

은 길게— 이렇게 누군가의 시를 열심히 읽어보는 일이 처음이다. 단어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시의 맛을 더욱 세심하게 느껴본다. 오래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 (2019.11.14. 참여자 하네스님의 5회기 후기, 대안 연구공동체 □□□□□□ 게시판)

셋째, 새로운 사유를 촉발하는 데 충분한 이질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는가? 우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초기부터 낯선 것을 참여자들의 시 쓰기 작업 속으로 가져오는 방식들에 대해 고민하였다. 예시로 제시되는 시를 고를 때에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성찰하게 하는 효과가 큰 내용의 시를 찾으려고 애썼다. 1회기에 참여자들과 함께 읽은 쉘보르스카의 「선택의 가능성」 역시 그런 관점에서 선택한 시였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다고 말한다. 그런데 시인은 “영화를 더 좋아한다/ 고양이를 더 좋아한다/ 바르타 강가의 떡갈나무를 더 좋아한다”고 노래한다 (Szymborska, 2007: 307). 좋아한다/싫어한다의 배타적 이분법 대신 좋아하는 것과 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말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이 세상에는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 역시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 쥐나 바퀴벌레를 싫어하지만 그것들을 발화하는 대신, 새들이나 기린,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는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 순간 세상은 달리 보일 수 있다. 시인은 취향의 이분화(dividing)가 아닌 취향의 미분화(微分化, differentiation)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쉘보르스카의 시를 읽으면서 참여자들은 세계의 절반은 혐오스럽고 절반은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가는 길에는 내가 싫어하는 것과 맛달뜨리기 전까지 조금씩 다른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많은 존재들이 촘촘하게 줄지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내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옷나무에서 좋아하는 바르타 강가의 떡갈나무까지 그 사이에는 전나무, 삼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앵두나무 등 온갖 나무들이 저마다의 자태로서 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의 존재를 떠올리며 이 더 좋은 존재의 각별함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오래도록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2회기의 시 콜라주는 기성 시인들의 시에서 단어들을 오려 나의 시로 만드는 기법이다. 내가 익숙하게 사용하지 않은 단어들로 가득한 타인의 시 속에서 내 감정을 표현해줄 시어를 찾아본다는 점에서 이질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제한적이다. 내 마음을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어가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시 콜라주는 단어를 고르고 오리고 붙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어들이 우리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만든다. 참여자들은 자기 마음을 낯선 언어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새롭게 명료화하며, 그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로써 자기표현의 기쁨을 느낀다.

B: 이제 겨우 두 번 했는데 레벨 업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8회차 수업이 기대가 돼요. 누구나 시인을 만드는 수업이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 레벨 업이 무슨 의미인가요?

B: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내면서 성장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내가 해낼 수 있는 건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고 할까? 마음을 안다는 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우울하다면 ‘우울해 우울해’ 하면서 바닥을 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분이 아니라 그래 우울할 수도 있지, 그걸 시로 써보면서 이때쯤에는 이게 좋았어, 근데 나는 우울해, 그렇지만 또 이게 좋았어. 이런 과정을 통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표현, 그래서 레벨 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2019.10.22. 참여자 B 심층 인터뷰 2회 녹취록)

과거의 사건을 자신이 늘 쓰는 말로 기술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단어를 콜라주하거나 은유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기 삶의 순간들을 써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그 순간들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치유와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페니베이커(Pennebaker, 2016)는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적 글쓰기(expressive writing)가 신체 건강을 향상시키고 우울한 감정을 줄여준다고 말한다. 강렬한 정서를 글로 변환하는 단순한 과정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쓰기의 과정은 과거의 어떤 사건에 수반된 자신의 정서를 반복적으로 기술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기성의 정서에 고착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이와 달리 낯선 어휘들을 오려서 은유적으로 표현해보는 방식은 자기 경험의 다의성을 환기시켜주고 그 경험의 의미나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와 해석이 유연성을 지닐 수 있도록 만든다. 은유는 다의성에서 오는 느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유의 사용은 고정된 의미를 벗어나서 다르게 생각할 계기와 선택권을 은유 사용자에게 제공한다(정성미, 2010).

3.6. 아틀리에의 수도 관리인: 닳은 점이 없는 어떤 사람으로 ‘함께’ 존재하기

시 콜라주나 은유로 표현하기, 다시 쓰기 등 작업과정에서 이질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활동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촉진강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촉진강의는 마지막 회기를 제외하고는 매 회기마다 30~40분가량 진행되었다. 나는 촉진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앞서 인용한 단락에 나온 들뢰즈의 말을 상기했다.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는 바와 닳은 점이 없는 어떤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한다.” 내가 어떤 촉진 내용을 가지고 참여자들을 만나야 닳은 점이 없는 존재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 즉 그들이 배우는 것이지만 그들 안에서 미리 마련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강의 내용을 준비하고 검토했다. 이 과정을 다시 성찰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먼저 나는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했다. 중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예술교육을 하는 예술가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흔한 질문 중 하나

는 활동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A: 예전에 TA(Teaching Artists) 교육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예술교육 수업 끝나고 나서 TA에게 자주 묻는다고 해요. “선생님, 수업이 재미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나: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 부여의 계기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게 필요해요.

(2019.7. A와의 대화, 기억회상 자료)

활동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있어야 활동이 일회적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니체는 인간의 삶에서 ‘의미’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고통에 대해 사람을 분격하게 하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함이다”(Nietzsche, 2002: 410). 인간 존재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고통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반대로 의미 부여가 어렵다면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할 때조차 허전함을 느낀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활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즐거움도 더 커지고 이 활동을 자기 삶의 다른 맥락과 통합하는 일도 더 용이해진다. 그러나 활동 그 자체를 즐기는 것만으로는 활동에 대한 의미부여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촉진자는 의미 부여를 위한 특별한 계기들을 이 집단 활동 속으로 가져와야 한다. 물론 이 활동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묻고 이야기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부여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곧 수행할 활동이 어떤 예술적 맥락 또는 역사적 맥락에서 등장한 것인지 알려줄 때 그들은 자신의 활동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느끼며 스스로 풍부한 의미들을 구성해낸다.

나는 2회기 시 콜라주 기법을 소개하면서 참여자에게 콜라주 방법을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고 콜라주 작업의 오랜 역사를 설명하는 촉진강의를 준비했다. 강의에서는 먼저 콜라주의 어원을 설명하고 콜라주 기법을 열정적으로 사용한 화가와 소설가에 대해 소개했다. ‘콜라주(collage)’는 프랑스어 ‘콜레르(coller)’, 즉 풀로 붙인다는 뜻의 동사에서 온 말이다. 이 기법은 잘 알려져 있듯이 20세기 초 유럽의 입체파 화가들이 출처가 다른 시각적 이미지들을 합성하여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널리 활용되었다. 미술 기법으로 알려진 이 작업을 최근에 저술의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작가는 헤르타 뮐러(Herta Müller)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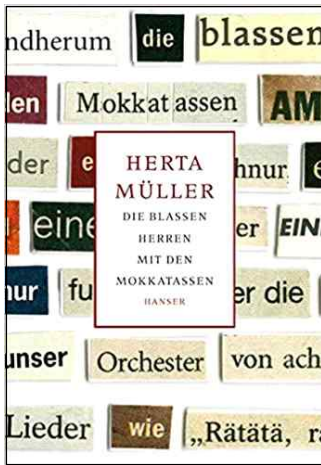
헤르타 뮐러는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 정권 하에서 극심한 감시와 검열에 시달리다 독일로 망명을 했다. 그녀는 2009년 노벨상 수상 후 인터뷰에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들 때마다 단어를 하나씩 꺼내 콜라주하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었”다고 말한다(Müller, 2009). 단어를 오리고 붙여서 소설의 문장을 한 줄 한 줄 만들어가는 그녀의 창작활동은, 말을 감시하고 그것을 통해 사유를 감금하는 전체주의 사회에 살면서 생겨난 깊은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우리 자신의 현존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사물과 몸짓과 낱말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낱말들을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 자

유로워칩니다”(Müller, 2010: 264). 이처럼 콜라주 작업을 통해 공포와 싸우고 자신이 자유롭게 존재할 언어의 자리를 만들어간 작가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같은 작업을 하게 될 참여자들에게 예술가와의 동일시가 일어나도록 촉진강의를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콜라주 작업이 동양 문화에 등장한 사례를 찾아내어 참여자들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활동의 역사적 깊이와 철학적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신라시대 의상(義湘)대사(625~702)는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라는 불교시를 썼다. 이 시가 완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설화가 남아있다(均如, 2010). 의상은 유명한 무덤에서의 일화를 겪고 원효와 헤어진 후 홀로 당나라로 건너가 불교연구에 매진하고, 그 연구결과를 방대한 양의 책으로 집필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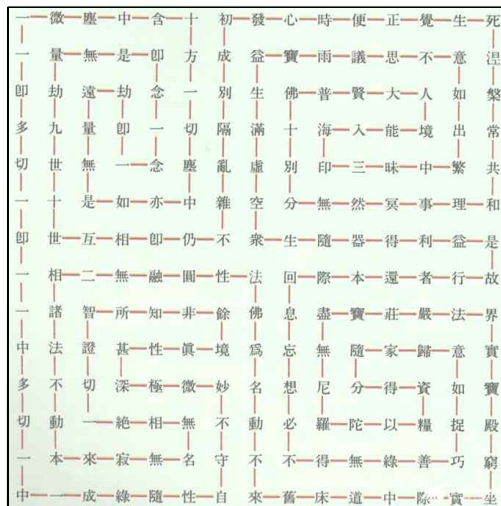
의상은 자기 스승인 지엄(智儼)대사에게 가져가서 원고를 한번 봐달라고 하죠. 지엄은 화엄종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승려인데, 지엄이 그 원고를 읽고는 의상을 불러다 “뜻은 아름다운데 글은 너무 답답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고를 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다 타고 나서 남은 재 속을 뒤져보라고 하죠. 거기엔 210개의 글자 조각들이 안 타고 남아 있었습니다. 의상은 그 종잇조각들을 수습을 해서, 그걸 다시 콜라주 하듯 맞춥니다.

(2019.10.18. 2회기 촉진강의 기록)



<그림 1>

헤르타 뮐러, 『모카잔을 든 창백한 신사들』 표지



<그림 2>

의상, 『화엄일승법계도』

나는 참여자들에게 헤르타 뮐러의 『모카잔을 든 창백한 신사들』의 표지 및 몇몇 페이지와 의상대사의 「화엄일승법계도」를 함께 보여주면서 두 작품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헤르타 뮐

리는 낱말조각들을 일반적인 가로쓰기로 배열을 한 데 반해, 의상은 배치 자체를 독특하게 한다. 이 불교시를 보면 가운데 ‘法’자가 있다. 불교에서 진리를 뜻하는 ‘法’자에서 시가 시작된다. 그렇게 왼쪽으로 줄을 따라가면서 읽으면 되는데, 계속 따라가면 결국 ‘法’자 바로 밑에 있는 ‘佛’자로 돌아온다. 불교에서 ‘佛’자는 진리와 하나가 된 자를 말한다. 이 콜라주 불교시는 다시 ‘法’자로 돌아가 순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의 운동에 따라 단어들의 배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처음에 촉진강의를 준비할 때에는 동양의 문화와 사유를 참여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이 내용을 넣었다. 그런데 회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 설화는 콜라주 작업이 우연성에 기대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언어는 태우고 자기 마음의 정수를 남기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이 활동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별로 참여자들이 한 편씩 선정해온 총 7~8편의 시에서 자신의 마음이 가는 단어를 고르는 일은 순간적으로 종이에 가득 적힌 단어들을 불태우고 이 순간의 불꽃 속에서 끝내 살아남는 소중한 단어들을 찾아내는 일이기도 하다. 이 일화는 자신들이 콜라주 작업을 위해 고른 단어들이 아주 소중한 거저낸 단어라는 느낌을 참여자들에게 줄 수 있다.

B: 콜라주 강의 때는 그 중국시가 제일 기억나요.

나: 중국시? 아, 의상대사 시요?

B: 네 그거요. 글을 이미지처럼 배치하는 작업에 관심이 생겼고요. 특히 그 이미지가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어서, 시작이 끝일 수도, 끝이 시작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 안의 감정들도 그렇겠구나. 지금의 절망이 절망이 아닌 시작과 닿아있고 시작이 시작이 아닌 끝일 수도 있다. 나는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해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2020.1.23. 참여자 B 회기 종료 후 추가 인터뷰 녹취록)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두 달이 지난 후, 참여자 B는 추가 인터뷰에서 글자의 배치와 그 배치 이미지가 촉발하는 철학적 사유가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다. 의상의 글을 소개했을 때 참여자들은 대체로 한자로 된 시를 낯설어하면서도 신기해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에게 서양의 문화보다 동양의 전통문화가 더 멀리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동양의 전통이 우리와 닮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기에 오히려 우리의 배움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추가 인터뷰에서 참여자 B가 보여준 우호적 반응을 보면서, 동양학자로서 이 프로그램의 촉진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닮은 점이 없는 어떤 사람으로 ‘함께’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동양의 고전과 설화들은 새롭고 이질적인 사유를 제공하는 촉진 자료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콜라주 시로 재현하고 성찰하기

시 쓰기로 성찰결과를 재현하는 예술기반 자문화기술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는 글레스닌(Glesne, 1997)의 시적 글쓰기 연구 「그 진기한 느낌: 시적 전사를 통한 재현 탐구(That Rare Feeling: Re-presenting Research Through Poetic Transcription)」에서 영감을 받았다. 글레스닌은 86세의 교육대학 교수인 도나 후아나를 면담하면서 도나 후아나에게 본인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도록 요청했고, 도나 후아나는 자신을 날아다니는 새로 묘사했다. 글레스닌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그 비유를 활용해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묘사하게 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 다음 글레스닌은 그 인터뷰 자료에서 나온 도나 후아나의 말을 “사용 맥락에 맞게 새롭게 병치(juxtapose)”하고 “나 스스로에게 그녀의 표현을 반복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등 병치와 반복이라는 시적 기법을 사용하여 시로 표현했다(김영천, 2013b: 421에서 재인용). 나 역시 연구자료들을 시로 재현하기 위해 유비의 방식을 활용했다. 나는 몽마르뜨의 예술가들이 입주해 있었던 아틀리에 ‘세탁선’과 집단 프로그램의 유비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성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나는 동료 교수 A에게 부탁하여 자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동시에 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이 시적 재현 속에 드러나기를 원했다. 프렌더가스트(Prendergast, 2009)는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시적 재현 속에 보존하기 위해 인터뷰 전사 자료를 활용하여 참여자가, 또는 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쓴 시를 ‘참여자 목소리 기반 시(participant-voiced poems)’라고 부른다. 이와 달리 연구 참여자의 말을 연구자의 관점과 통합하는 것은 ‘해석적 시(interpretive poetry)’라고 부른다(Langer & Furman, 2004; Leavy, 2018에서 재인용). 나는 이런 해석적 시의 일환으로 자기 인터뷰 자료와 참여자의 후기를 함께 활용하여 콜라주 시를 작성하였다. 이런 해석적 시는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와 연구자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다성적 시(polyphonic poetry)’로 명명할 수 있다.

시를 구성하는 데 사용한 자료는 첫째, 참여자들이 회기별로 감상을 적어서 올린 7개의 후기와 이 후기에 대한 댓글<표 3>, 그리고 앞서 3장에서 인용한 참여자 후기 발췌본이다. 둘째, 프로그램 공동 기획자이자 참여관찰자인 A교수에게 부탁해서 생성한 자기 인터뷰 자료이다<표 4>. 프로그램의 매 회기를 마칠 때마다 A와 함께 평가를 진행했는데, 그때 나왔던 ‘세탁선’ 아틀리에 비유를 다시 주제로 삼아 프로그램 종료 후 인터뷰를 실行了 후 녹취록을 작성하여 이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3> 참여자 7인 인터넷 후기 및 댓글 발췌(3장에서 인용한 단락들은 생략)

1	<p>나는 시 쓰는 경험을 하고 있는 ‘시인’이다. 선생의 지도에 따라 훈련하는 게 아니라 나를 표현하기를 시작한다. 시작인 시작(詩作) 8줄에 나를 참 많이 담은 것 같다. 우리 조 ‘시인’들이 서로의 ‘시’를 읽고 이야기해주었다. 부끄럽고, 감사하다고 다들 생각했다. 1시간쯤 지난 것 같았는데 끝났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금방 할아버지가 되겠다.... 댓글: 새로운 미적 경험 앞에서 설레고 불안한 소년 시인^^</p>
2	<p>시인이 되고 싶은 분, 등단하고 싶은 분은 조심스레 거절하신다 하셨다. 그러나^^ 이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내 안의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도 있을 듯... 유난히 이 수업은 내 안의 문학 감성을 최대한 끌어 올리며 나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게 한다.... 댓글: 먼길을 힘겹게 돌아와 도착한 이 곳에는 내 안의 시인과 아이와 단어들이 기다리고 있지요.</p>
3	<p>단어를 고를 때 이미 시작은 시작-되었다. 시는 드러났고 상담은 감춰졌다. 顯微無間- 드러남과 감춰짐엔 틈이 없다 불안은 설렘을 피워 올렸고 시는 나를 물질하는 중 댓글: 물질을 응원합니다! 파도와 물길이 낯선 감각으로 안내해주겠지요</p>
4	<p>잊고 있었던 지난 기억에 있던 아이를 소환하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추억처럼 따라왔고 누군가에게는 장롱 밑 먼지처럼 잊고 싶었던 아픔까지 따라왔다. 우리는 그 아이 앞에서 아이의 마음을 몰라주었던 아니면 모르는 척 넘어가려 했던 마음을 서로 나누며 다독여 주었다.... 댓글: 마음의 무늬, 가장 선명하게, 혹은 아프게 그려져 있는 아이를 얼마나 더 만나야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p>
5	<p>사물이 되어보는 경험을 했다.... 시에 드러난 얘기들은 그 사물이 되어본 내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진 못했지만, 평소 지나치던 사물이 되어, 그 상황 그 입장에서 느끼고 표현해 보는 경험은 새로웠다.... 사물이 되어보면서 존재, 관계, ‘나’를 돌아보고, 결국 참다운 ‘내’가 되는 법을 찾아본 것이다.... 시를 쓰면서, 시를 나누면서, 시인이라 불리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드러내면서 따뜻하고 배부른 경험을 하고 있다. 댓글: 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시인으로 만들고 활동을 꺼려하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마술같은 금요일입니다. 들여다보고 드러내는 일 무심코 들여다 보다 무심히 드러나는 얼굴 함께 거울을 보는 비밀스럽고도 아름다운 시간입니다.</p>
6	<p>언젠가부터 예술가가 꿈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공무원이 아닌 예술가가 되고 싶었다)... 일주일의 누적된 피로가 단어를 자르고 붙이는 과정에서 사르르 녹는다.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처음 맛보는 이 세계가 너무 재밌어서 매주 금요일을 기다리게 된다. 마치 꼬마 예술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댓글: 예술가가 된 공무원/ 예술가가 된 주부/ 예술가가 된 변호사/ 예술가가 된 영세자영업자/ 예술가가 된 은행원// 바뀐 우리들의 이름으로 또 일주일이 살아지는 가을..</p>
7	<p>나에게 19년 가을의 금요일 밤은/ 중앙선 망우역의 파랑에서 빨강으로 가는 눈부신 노을빛/매일매일 뾰족한 노란색 스테일러 연필과 연필이 담긴 유리병/울게 하소서와 테이블 위에서 춤추는 손, 그리고 사각사각 툇박툇박 글자 쓰는 소리/ 벽에 찰싹 붙은 그녀의 뒷모습과/ 송아지 막걸리와 굴실굴실 춤추는 여인과 열이 날 때 먹는 사과와 맛, 라이파이와 눈서리 가득한 겨울산/수박처럼 달게 웃는 선생님과 사슴처럼 목이 긴 시인/ 그리고 햇살과 열매나무/ 낭송과 눈맞춤과 숨쉬기/ 찬바람과 청명함과 온기의 시간 댓글: 이 한 편의 시로 올해 가을이 마무리되었네요....아름다운 후기, 양호 같은 구절... 함께 시를 쓰신 분들의 이름이 담긴 구절이겠지요.</p>

<표 4> 자기 인터뷰 자료

- A: 우리, 프로그램 잘 마쳤죠? 다 끝내고 세탁선 아틀리에 비유를 떠올려보니 어때요?
- 나: ‘세탁선’이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든 곳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가난한 예술가라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 전문성의 기준에서 보면 가난한 작가들이라는 거죠. 사회적 명성이나 전문 자격증 같은 것의 측면에서 보면 상징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예술가인 셈이죠. 이들이 그 공간에 모여들어 함께 작품을 썼다는 게 마치 몽마르뜨의 가난한 예술가들이 ‘세탁선’에 모여들어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전문 예술가가 있고 그 전문가가 다른 예술가 지망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번듯한 문학적 공간, 그러니까 프루스트가 말했던 문학의 양성소나 아카데미학 교육기관은 아닌데, 문학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어 문을 두드려요. 이 문이 ‘세탁선’의 흔들거리는 문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흔들거리는 문’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이가 잘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이가 맞지 않는 문이라는 건 성능이 좋지 못한 문이라는 거야. 이가 딱 맞으면 잘 잠긴다는 거고, 문으로서의 기능을 잘해서 누구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들어올 사람만 들어오게 하는 문이라는 거죠.
- A: 선별로서 기능하는 문이 아니라는 거군요.
- 나: 이가 맞지 않는 문은 발로 뺨 치면 부서질 것 같은 문, 문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쪽은 출입구예요 정도만 알려주는, 조금만 건드려도 활짝 열리는, 부서질 것 같은 문이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라는, 그런 문. 대단한 작가들만 열쇠로 따고 오는 문이 아닌 거죠. 노크 하면 누구니 하고 묻고 확인해서 통과시키는 문이 아닌 거. 그래서 이 세탁선 비유가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덜컹거린다는 것은 소리를 낸다는 거잖아요. 문이 소리를 낸다는 건 참 좋은 느낌이에요. 소리 없이 열렸다 닫혔다 누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덜컹거리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오는 이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문이라는 거죠. 열려있음의 소리를 낸다는 거, 누군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참 멋지지 않아요.
- A: 수도 이야기는요?
- 나: ‘세탁선’의 수도이야기는 정말 오래 전에 읽었던 조셉 캠벨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줘요. 젊은 시절 뉴욕에서 머물렀던 하숙집 이야기 하면서 몇 층이나 되는 하숙집이었는데, 쓸 수 있는 수도는 1층에 하나밖에 없었고 주인이 절대 층마다 수도를 설치하지 않았대요. 꼭대기 층에 사는 사람도 아래층까지 내려와 물을 길어가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 추억인지를 말해요.
- A: 그게 캠벨 이야기예요? 베르그송이 1차 세계 대전 때 수도물이 광광 열어있는 집에 살면서 고생했다는 거 읽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 나: 그게, 당장 틀면 물이 나온다, 이거보다 아래층까지 내려가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물을 길는다는 거, 물을 마신다는 거 생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수도에서 흘러나오는 게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는 언어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언어는 입만 있으면 누구나 말할 수 있고 귀만 있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사실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수도물을 받으러 가는 게 언어를 길으러 가는... 그렇지만 수도물을 받는 게 산 넘고 물 건너 생명수를 찾아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그거 받으러 가는 정도의 수고, 그 수고가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험난한 건 또 아니고, 틀면 나온다는 그 기계의 적절한 자동성, 아날로그식 기계가 갖는

은화한 노고가 참 좋아요.

A: 그럼 수도 관리인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나: 물이 어떤 사람들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언어가 어떤 사람에게만 독점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수도가 얼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수도꼭지가 고장 나서 물이 아무데나 새지 않도록 해주는 것, 어떻게 보면 언어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죠.

A: 이런 비유 속에서 우리 활동을 다시 되돌아보면...

나: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수도 관리인은 조별로 활동한 리더들이예요. 리더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충분히 말하지 못했던 자들을 말하게 하는 거죠. 매일 말하는 사람, 쓰는 사람, 전문작가 따로 있고 나머지는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닌 작업. 그리고 수도 자체가 자기 방에 있어서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물을 쓰게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자들에게 언어를 주고 모두가 귀가 되어 준다는 거, 그런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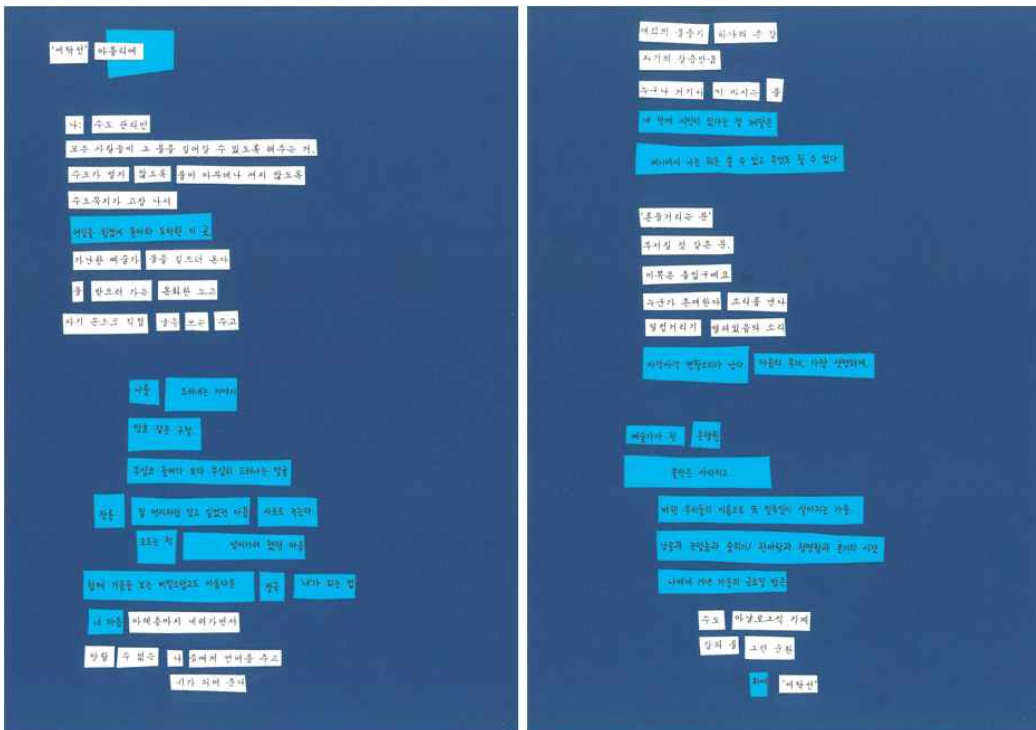
A: 노고가 만들어내는 귀중함이라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나: 노고는 물을 길어 쓰는 사람의 노고인데, 모든 예술가들이 물을 길러 온다는 건, 그냥 틀면 물이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글을 자기 손으로 직접 써야 한다는 거죠. 노고란 글을 쓰는 과정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같은 수도를 쓴다는 비유가 전 좋은 게요. 먹는 물은 다 달라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하나의 수도관에서 나와서 물을 자기가 필요한 만큼 길어간다는 게, 이 활동의 대화적인 상황 같은 게. 그 대화의 물줄기 같은 흐름. 강물이 흘러가면 누구나 거기서 물을 떠 마시는데, 떠 마실 때는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 물이지만 하나의 큰 강의 흐름에서 자기가 자기 물을 떠서 자기 몸으로 가져가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활동이 그런 거예요. 같이 대화를 하면서 커다란 물, 언어의 흐름이 형성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필요한 걸 가져가는 일들이 우리의 나눔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갈증만큼 떠가는 거 같아요.

A: 저는 '세탁선'의 화가들을 떠올리면서 물을 떠가서 붓을 씻고 그 물에 물감을 풀어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그런 식으로 상상해보기도 했어요. 같은 물인데 결국 자기 물감을 풀어서 자기 그림이 된다는 거다. 그런데 강의 물을 떠 마신다는 비유가 훨씬 그득하네요.

나: 노자(老子)에게도 물이 정확하게 그런 순환, circulation의 이미지로 나오거든요.

나는 이상의 두 자료를 활용하여 콜라주 시<그림 3>를 완성하였다. 여기서 미색 종이의 단어들은 나의 자기 인터뷰 자료에서, 파란색 종이의 단어들은 참여자 후기 자료에서 오려붙인 것이다.



<그림 3> 콜라주 시 「'세탁선' 아틀리에」 원본

이 콜라주 시를 지면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세탁선’ 아틀리에

나: 수도 관리인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수도가 얼지 않도록 물이 아무데나 새지 않도록
 수도꼭지가 고장 나서
먼 길을 힘겹게 돌아와 도착한 이 곳,
 가난한 예술가 물을 길으러 온다
 물 받으러 가는 온화한 노고
 자기 손으로 직접 물을 쓰는 수고

나를 드러내는 이야기
 암호 같은 구절..
 무심코 들여다 보다 무심히 드러나는 얼굴
 장롱 밑 먼지처럼 잊고 싶었던 아픔 사르르 녹는다.
 모르는 척 넘어가려 했던 마음

함께 거울을 보는 비밀스럽고도 아름다운 결국 ‘내’가 되는 법
내 마음 아래층까지 내려가면서
말할 수 없는 나 들에게 언어를 주고
귀가 되어 준다

대화의 물줄기 하나의 큰 강
자기의 갈증만큼
누구나 거기서 떠 마시는 물
내 안에 시인이 있다는 걸 깨달은
여기에서 나는 뭐든 쓸 수 있고 무엇도 될 수 있다.

‘흔들거리는 문’
부서질 것 같은 문.
이쪽은 출입구예요
누군가 존재한다 소리를 낸다
덜컹거리기 열려있음의 소리
사각사각 연필소리가 난다. 마음의 무늬, 가장 선명하게,

예술가가 된 은행원
불안은 사라지고
바뀐 우리들의 이름으로 또 일주일이 살아지는 가을...
낭송과 눈맞춤과 숨쉬기/ 찬바람과 청명함과 온기의 시간
나에게 19년 가을의 금요일 밤은
수도 아날로그식 기계
강의 물 그런 순환
위에 ‘세탁선’

이 콜라주 시에서 진한 글씨체의 단어들은 참여자 자료에서 온 것이고 나머지 단어들은 자기 인터뷰 자료에서 온 것이다. 앞서 3장의 글쓰기를 위해 참여자들의 후기를 이미 충분히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라주를 위해 색지에 후기를 인쇄하고 거기서 다시 시어들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동안 단어들이 주는 감응은 또 달랐다. 처음에는 기획자와 진행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조력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콜라주 작업을 시작했지만, 참여자의 단어들을 고르고 병치시키면서 이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게 되었다.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나 자신에게 갖은 의미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성찰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말할 수 없는 나 들에게 언어를 주고 귀가 되어 준다”: 나는 예술의 장에서 말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문학의 언어를 제공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콜라주 시를 만드는 동안 말할 기회가 없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나 들에게 언어를 주어”야 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참여자들은 특별히 사회적 취약

계층의 시민들은 아니었다. 교사인 참여자는 교실에서는 독점적으로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중년 남성이라면 가정에서 말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전업주부는 아이에게 그럴 수도 있고, 관리직 직장인은 부하 직원에게 그럴지도 모른다. 이 아틀리에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래서 서로의 인격들이 더 복잡한 맥락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관계로 돌입한다면, 모두는 늘 하던 대로 말할 권리를 고집하는 30명(프로그램 진행자와 리더들 포함)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 아틀리에 밖에서 이 30명은 일방적으로 듣기를 강요당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교사, 중년 남성, 주부, 직장인, 학생 모두 더 강력한 권위자 앞에서는 말할 권리를 박탈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일방적 대화의 상황은 자신의 외부에 말할 수 없는 타자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 안에 “말할 수 없는 나 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늘 말하는 ‘나’는 사회적 자리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은 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문학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문득 생겨났다 사라지는 이 문학적 공동체는 그 자체로 현상학적 판단중지(epoch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는 일시적이지만, 완고한 편견의 맥락이 지워지고 말할 수 없는 나에 대해 나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나의 귀가 되어 주는 것은 내 곁에 모인 참여자들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귀가 되어주는 타인들을 만나면서 스스로의 귀가 되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자기 경청을 통해 자신이 다른 무언가가 되기를 원하며 “무엇도 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

“수도 아날로그식 기계”: 고담준론(高談峻論)은 ‘뜻이 높고 바르며 매우 엄숙하고 날카로운 말’이라는 의미이지만 종종 상아탑에 갇혀있음을 비난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인문학을 전공하면서 옛 사람들의 책을 주석들과 함께 꼼꼼히 읽고 거기서 통찰들을 얻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나의 학술적 즐거움이 현실적인 효용성의 관점이나 현대적인 가치 기준에서 회의적 시선을 받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다. 시력의 저하만을 가져다준 이 고담준론들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수도’, ‘아날로그식 기계’, ‘온화한 노고’ 같은 단어들은 나의 그런 태도들과 화해하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들은 대화적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화란 주로 옛사람들이나 전공학자들과의 전문적인 대화들이었다. “먼 길을 힘겹게 돌아와 도착한 이곳”이라는 표현은 집에서 우리 아틀리에까지 두 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온 참여자가 쓴 것이었지만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직장 업무로, 집안의 대소사로 프로그램에서 누릴 수 있는 ‘자기의 온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하는 참여자들을 보면서, 수돗물을 찾아 먼 길을 돌아오는 그들의 ‘온화한 노고’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 앞에서 학술적 은어들을 덜어내고 더 잘 말하며 더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일이 학문적 고집을 꺾는 일은 아니며, 오히려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도 깨달았다. 이 점에서 ‘온화한 노고’는 참여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회적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문학적 대화의 자리로 나오기 위한 나의 노력을 촉구하는 표현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아틀리에의 시인들만큼이나 수도 관리인도 수돗물의 수혜자이다. “나에게 19년 가을의 금요일 밤”은 사람들과 함께 머물

고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인지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수용되는 시간이었다.

5. 상담과 예술교육 사이에서: ‘사이-존재’로서의 문학상담 실천가

그동안 문학상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작업들을 검토하면서 직접 시를 써보기도 했지만,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이 주역할이 된 이후에는 늘 촉진자, 진행자, 관찰자의 입장에만 있을 뿐 시를 쓰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이 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시를 읽고 시를 쓰고 시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들 모두에 더 친밀해지고 또 깊이 연루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느낌과 사유의 변화를 시와 같은 예술작품으로 표현해보고 연구자료를 재현하는 것은 새로운 발견과 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촉진자, 진행자, 슈퍼바이저로서 역량을 성찰하고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과정을 다시 반영성(reflexivity)의 차원에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하는 여행’, ‘상담은 마음의 형클어진 서랍 속을 정돈하는 일’ 등과 같이 상담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들이 존재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나와 A는 예술가 집단과의 유비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해 성찰하고자 하였다. 인문상담자로서 나는 나 자신을 인문학과 상담학의 ‘사이-존재’라고 느낀다. 어떤 존재의 사이, 틈새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위치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감지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인문상담자는 ‘낯선 존재’이며, 이미 풍만한 살집을 사랑하는 인문학과 상담학의 두 신체 사이에 끼여 압사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사이-존재’로서 우리는 문학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치유적 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자로 스스로를 표상한다. 왜 문학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예술가와의 유비가 더 친숙하고 예술교육자로서 규정되기를 선호할까? 그것은 이 글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와 만났던 많은 참여자들이 상담에 대한 불안(“문학은 설레고 상담은 불안하다”)을 호소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19년 하반기에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우울증, 불안, 심각한 스트레스, 자제할 수 없는 분노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다고 답한 이가 10명 가운데 6명을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설문 결과에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증진노력을 하는 이는 전 해보다 7.6% 감소했다(아시아 경제, 2020.1.12). 이는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지효과가 커진 동시에 같은 이유로 정신건강 관리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가 시민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감지했던 현장의 분위기와도 상통한다.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다루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상담 집단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염려하는 사회적 낙인 효과에서 자유로운 치유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문학상담을 예술교육 모델에 가깝게 사유하고 실천하는 것, 즉 치유적 예술교육으로

서 간주하는 것은 큰 장점을 갖는다. 예술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은 치유의 계기를 가질 수 있다. 동시에 치유적 예술교육과의 접촉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교육과정에서 자각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갖게 함으로써 오히려 상담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에 기여한다. 상담을 ‘받는’ 것보다는 예술을 ‘하는’ 것이 더 즐겁고 긍정적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상담이 ‘받는’ 수동적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데 문학상담은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교육 모델을 선호하는 데에는 ‘긴 존재’로서의 어려움도 있다. 문학상담 집단 프로그램은 상담의 관점에서 보면 예방상담적 요소가 강하다. 코닌(Conyne)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 방법에 의존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심리적, 교육적 질환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려고 시도하는 의학적 서비스는 승산이 없는 계획”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Conyne, 2010: 17-18). 일상생활에서 좋은 삶을 추구하고 주관적 안녕감과 사회적 안녕감을 높이며 몰입현상을 강화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높일 때, 오히려 정신질환과 같은 문제의 발생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문제행동들에 대해서도 그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Conyne, 2010).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문학상담은 상담의 포괄적인 예방 모형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중증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위기를 관리하는 상담과 임상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나와 A는 인문학자로서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거쳤지만 심리상담적이거나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는 문학상담 집단 프로그램들은 우리 자신의 역량만큼 기획된 것들이다. 이것은 실천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태도이기는 하지만, 문학상담의 실천을 한계 짓기도 한다. 이 실천의 한계를 지적하는 외부의 목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인문학의 치유적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갱신해야 한다는 내적 요구와 상담 전문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외적 요구의 줄다리기 속에서 정신적·육체적 긴장과 피로를 자주 느낀다.

둘째, 우리는 인문학과 상담 양 방면에서 전문성 획득이라는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문학상담 집단 프로그램은 아이러니하게도 전문성 자체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시인이라는 서품을 받지 않은 이들의 시 쓰기 활동을 시인-사제(전문가)의 활동만큼 가치 있다고 보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아마추어 시인의 활동을 중시하는 것은 치유가 우선이기 때문에 작품의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예술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문학상담은 참여자들이 감상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예술활동을 향유해야 한다는 지향점을 갖는다. 활동을 통해 “읽기를 좋아합니다. 쓰기를 싫어하고요”라는 참여자의 목소리가 “내 안에 시인이 있다는 걸 느끼는 신기함과 뿌듯함”으로 바뀌는 실천적 변환 과정이 만들어지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이 예술생산자의 경험은 진정한 고급 감상자, 즉 고급문화예술 소비자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의 중간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점은 예술에서의 소비자/생산자 이분법 혹

은 전문가주의를 문제 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이분법의 해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는 아마추어리즘은 대중문학의 확산을 통해 이미 전문성을 잃어가고 있는 순수문학의 자리를 더 좁게 만들고 문학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 독서의 치유적 효용성은 이미 시장에서 큰 상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식민화된 개인의 고통과 불안에 대한 ‘대중적 치유법’으로 힐링이라는 장치가 등장”한 상황이다(이광호, 2018: 105). 힐링 에세이의 저자들이 멘토의 이름으로 미디어에 등장해서 치유의 복음을 전파하며 대규모 출판문화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치유적 예술교육 역시 문학적 전문성과 예술적 가치가 소멸되어가는 자리에서 생겨나는 문학상품화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아마추어 문화를 옹호하는 바르트(Barthes, 1999)는 아마추어가 ‘문명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아마추어로서 글을 쓸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의 활동이 그들에게 불려일으키는 이미지에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 외적 인정에 대한 강박적 관심을 거둬으로써 오직 성과로만 평가받는 사회의 강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바르트가 보기에 이것은 완전히 소외되지 않은 새로운 문명사회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오직 즐거움을 위해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아마추어리즘의 확산은 우려와 달리 양질의 문학작품의 확산에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좋은 문학작품을 찾아 읽기 마련이다. 문학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시 쓰기를 직접 해보면서 생겨난 일상의 변화 중 하나로 문학전문 출판사의 시집들을 사는 일이 많아졌음을 공통적으로 언급한다. 고급독자의 양산은 예술교육의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그것의 부수적 효과로 따라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좋은 문학의 쇠퇴는 아마추어 사회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르트는 전문성과 대중문화의 발전은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분리를 끔찍하게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소비 사회이지 아마추어 사회는 전혀 아”니다(Barthes, 1999: 209). 치유적 예술교육의 성격을 지닌 문학상담 프로그램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힐링사제들의 책과 말씀을 소비하는 수동적 위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이고 직접적으로 문학과 접촉하고 스스로 쓰기 시작하는 주체의 위치로 나아가는 것이다. “‘낮선’ 것과 만나기, ‘허락’ 없는 시 쓰기, ‘평가’ 없는 시 합평회” 활동을 통한 주체의 형성 과정에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두 가지 믿음, 즉 자기에 대한 기성의 믿음,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대한 믿음과 거리를 두는 비판적 주체로 전환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사이-존재로서의 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성찰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전문성이 각 영역에서 이미 확고하게 요구하고 있는 기준이나 절차를 모두 충족시킴으로써만 획득되는 것이라면, 새롭게 등장하는 교차적이고 융합적인 영역에서의 활동들은 전문성의 관점에서는 항상 유예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기존의 기준들로 환원되거나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경험들의 의미와 가치는 평가 절하되고 무시될 것이다. 비판적 주체화의 문제는 인문학과 상담이 두 영역이 별개로 존재할 때에는 주어지지 않는 이질적 경험들과 배움으로부터 새로운 전문성을 형성해가야 한다는 과제로 내게 다가왔고, 이는 앞으로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

셋째, 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내 참여자들의 자기 관념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새로운 의미 구성의 계기가 되는 ‘이질성, 새로운 물맛’을 공급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은유적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상적 표현에서 벗어나는 언어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은유적인 인문학 텍스트는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에 긍정적 언어의 ‘달’을 내려주는 앵커링 기법으로 진행되는 자기성찰적 글쓰기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는 것으로, 내담자의 부정적 신념을 변환시키는 데 효과적이다(최종환, 2019). 그런데 새로운 의미 구성이 진정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대한 회의가 필요하다. 셀리그만(Seligman, 1999)의 말처럼, 사회적 성공의 삶을 대표하는 “포르쉐, 샴페인, 일광욕’이 좋은 삶(good lif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Conyne, 2010: 54에서 재인용)는 점을 깨닫지 않는 한, 여전히 외적 기준에 따라 자신을 부정적으로 파악해 온 침습적 사고와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고 몰입을 경험하며 의미를 확보함으로써 세속적 성공과는 차별화되는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긍정심리학의 관점(김명식, 2017)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들의 시인-되기를 통해 구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인문상담이 추구하는 비판적 주체화의 과정을 구현하기 어렵다. 긍정 정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비판적 주체화의 과정에서 부정성이 갖는 고유한 실천성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판단은 내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 맥락을 자각하게 할 수도 있고 타자의 삶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현실을 바꾸는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맹자와 같은 유가철학자들은 부정적 정서의 하나인 수치심(羞惡之心)이 덕의 기초가 되어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진은영·김경희, 2017; 이진남, 2016). 문학상담의 ‘이질성, 새로운 물맛’은 참여자들이 가진 부정적 기억이나 감정에 긍정적 언어를 돌려주는 동시에, 보다 비판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회적 실천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회적 치유를 개인적 치유와 분리하지 않고 개인의 덕목이자 삶의 의미로 삼았던 동아시아의 고전적 사유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보다 더 이질적이고 “닭은 점이 없는 어떤 사람으로 함께 존재”하며 아틀리에에 머물러야 할 것 같다.

넷째, 나는 회기마다 문학과 철학의 다양한 텍스트들을 활용하여 촉진강의를 진행했다. 이 촉진강의에 대한 반응과 전체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나는 회기가 끝날 때마다 참여자 1인과의 심화 인터뷰를 진행하며 각 회기의 소감과 프로그램의 흐름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확인했다. 또한 매 회기마다 진행 리더들의 성실한 참여관찰과 자기성찰이 들어있는 회기보고서를 수집했다. 그러나 이 글은 생성된 자료들을 모두 활용하여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했다기보다는 기획과 촉진강의의 주안점, 촉진자의 역할, 그리고 촉진자가 관심을 기울였던 특정 회기를 분석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연구자인 나 자신에게 부과된 실천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속성상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평가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게시판의 참여자 후기를 주된 분석자료로 삼음으로써 표명될 기회가 없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참여자들의 불편감과 아쉬움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제한적이다. 진정으로 다성적 목소리에 기반한 시적 재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틀리에의 또 다른 중요 구성원인 리더의 목소리들, 그리고 불편하게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들이 어우러져야 하지만, 이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¹⁾

1) 4장에 실린 <표 4>의 자기 인터뷰 자료에 나오는 조셉 캠벨의 이야기는 인터뷰 후에 기억을 더듬어 캠벨이 쓴 여러 권의 책들을 찾아본 결과, 빌 모이어스와의 대담집 『신화의 힘』에 나오는 내용이었다(Campbell & Moyers, 1992). 그런데 25년 전에 읽은 책 내용에 대한 나의 기억은 실제 책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 하숙집 주인은 수도 설비조차 거부하여 하숙생들에게 우물물을 길어다 쓰게 하였다고 한다. 이 자기 인터뷰에서 중요했던 것은 정보의 정확성보다 기억의 오류를 계기로 내게 찾아온 수도 관리인에 대한 풍부한 생각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록하였다.

참고문헌

- 김명식(2017). 즐거운 삶과 의미 있는 삶 - 셀리그만과 밀. *초등도덕교육*, 55, 59-87.
- 김영천 · 이희용(2008). 질적연구에서의 글쓰기: 문학적 표현양식들의 이해. *중등교육연구*, 56(3), 187-222.
- 김영천(2013a). *질적연구방법론II*.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2013b). *질적연구방법론III*.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윤경(2017). 세 예술교육가의 목소리: 교육연극 전공 예술교육가들의 학교 안 예술교육에 대한 경험, 관점, 비전. *교육인류학연구*, 20(3), 259-288.
- 박순용 · 장희원 · 조민아(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 55-79.
- 이광호(2018). 나를 읽지 마세요: 문학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가?. *쑈, 문학의 이름으로*, 6(1), 104-117.
- 이금희 · 장만식(2019). 삶을 가꾸는 문학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보고서.
- 이동성(2012). *질적 연구와 자문화기술지*.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이동성 · 김영천(2014).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포괄적 분석절차 탐구: 실용적 절충주의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2(1), 159-184.
- 이진남(2016). 긍정심리학의 행복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논집*, 44, 97-131.
- 이혜성(2015). *문학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 정성미(2010). 감성과 인문치료의 언어, 은유. *인문과학연구*, 24, 201-220.
- 진은영 · 김경희(2017). 유교적 수치심의 관점에서 본 운동주의 시 세계. *한국시학연구*, 52, 299-32.
- 최대열(2020.1.12). 우울증에 빠진 대한민국...“국민 절반이 스트레스 적신호”, *아시아경제*.
- 최종환(2019). 모델링 기법에 입각한 자기성찰 글쓰기 수업 연구 - ‘관찰, 도전, 조정’의 경로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9, 247-280.
- 均如(1287). *一乘法界圖圓通記*. 최연식(역)(2010). *일승법계도원통기*.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Barthes, R. (1973). *Le plaisir du texte*. 김희영(역)(1997). *텍스트의 즐거움*. 서울: 동문선.
- Campbell, J. & Moyers, B. (1988). *The power of myth*. 이윤기(역)(1992). *신화의 힘*. 서울: 고려원.
- Chang, H. (2008). *Autoethnography as method*.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Inc.
- Conyne, R. (2010). *Preventive counseling*. 이규미 · 지승희(역)(2010). *예방상담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Deleuze, G. (1964). *Proust et les signes*. 서동욱 · 이충민(역)(1997).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울: 민음사.
- Ellis, C. (1997). Evocative autoethnography: writing emotionally about our lives. In Tierney, W. G. (Ed.). *Representation and the text: re-framing the narrative voice* (pp. 115-139).

-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aulkner, L. (2018). Poetic inquiry: poetry as/in/for social research. In Leavy, P. (Ed.). *Handbook of arts-based research* (pp. 208-230).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Glesne, C. (2016).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5th ed.). 안혜준(역)(2017). 질적 연구자 되기.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Hanauer, D. (2012). Growing up in the unseen shadow of the kindertransport: a poetic-narrative autoethnography. *Qualitative inquiry*, 18(10), 845-851.
- Leavy, P. (2015). *Method meets art: arts-based research practice* (2nd ed.). 김정희, 신승렬, 강병직, 김정호, 김해경, 손지현, 안혜리(역)(2018). 예술기반 연구의 실제. 서울: 학지사.
- Minh-Ha, T. (1989). *Woman, native, other: writing postcoloniality and femin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Müller, H. (1984). *Niederungen*. 김인순(역)(2010). 저지대. 서울: 문학동네
- Nietzsche, F. (1996). *Jenseits von Gut und Böse. Zur Genealogie der Moral 1886-1887*. 김정현(역)(2002). 선악의 저편 · 도덕의 계보. 서울: 책세상.
- Pennebaker, J. (2013). *The secret life of pronouns: what our words say about us*. 김이영(역)(2016). 단어의 사생활. 서울: 사이.
- Prendergast, M. (2011). In exile/in flight: two poems from a poetic autoethnography of academic banishment. *Cultural studies ↔ critical methodologies*, 11(3), 303-305.
- Rogers, C. (1961). *On becoming a person*. 주은선(역)(2009). 진정한 사람되기. 서울: 학지사.
- Szyborska, W. (2000; 2002; 2005). *Selected poems of Wisława Szymborska*. 최성은(편역)(2007). 끝과 시작. 서울: 문학과지성사.
-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cafcd9829f140079dcb9c3ab5c14c10>

투고일자: 2020. 2. 7.

심사일자: 1차심사(2020. 2. 10~2. 12), 2차심사(2020. 2. 13~2. 27), 게재승인(2020. 3. 4)

필자성명: 김 경 희

소 속: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최종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철학박사

관심분야: 철학상담, 문학상담, 동양철학

E - mail: dgrkim@kcgu.ac.kr

【Abstract】

An Arts-based Autoethnography on a Professor's Implementation of a Group Program in Literary Counseling

Kim, Kyung-hee

Associate Professor,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This paper is an autoethnography that explores my first-hand experiences in literary counseling in an artistic way. I organized a literary counseling program that involved 24 citizens as participants for eight weeks at an alternative research community in Seoul. I gave facilitative lectures for the program and conducted group activities with the assistance of humanities counseling major students as leaders for each group. In this study, I reflect on the field experiences by means of metaphoric-confessional writing and polyphonic poetry writing in order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program of literary counseling and to inspect my critical mind and troubles as a practitioner.

I try to pres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 metaphoric coding and in vivo coding. The program began with an invitation to a secrete atelier of poetry. The voices of participants were heard in the space of the atelier where they had to write their own poems, such as "Literature is fluttering, but counseling is unsettling," and "I like reading, but not writing." As a "water supply manager" of the atelier, I hoped to provide them with "heterogeneity, new water tastes," and tried to encourage them to "encounter strange things, write poems without permission, and talk about their works together without evaluating them." In order to facilitate such activities, I tried to "be there as someone who bears no resemblance to what they want to become." The activities that engaged me and participants were then represented into a polyphonic collage poem "Atelier, Bateau-Lavoir."

Key Words: literary counseling, autoethnography, arts-based research, polyphonic poetry writing, collage poetry